



## 농촌진흥청, 충남 공주 과수화상병 예찰 현장 점검

- 이승돈 청장, 11일 충남 공주시 사과 재배 농가 방문
- 미발생 지역 신규 발생 이어져...정밀 예찰 강조
-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확산 차단, 농가 자가 예찰·신고 중요

※일시: 2026. 6. 11.(목) 16:30~ / 장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6월 11일 오후,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정밀 예찰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관들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양상은 기존 발생 지역에서 재발생하고,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의 신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경기 고양, 충남 홍성(현재까지 5곳)

이 청장은 “농촌진흥기관의 정밀 예찰 못지않게 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가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농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제를 한층 강화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온이 26~28도에 머무는 날이 지속되면 균 활동이 활발해지는 과수화상병 특성상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로 보인다.”라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고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 10일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은 89개 농가 38.7헥타르(ha)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발생 면적은 118% 수준이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또는 미발생 지역에서 2차 정기 예찰을 추진하는 등 전국 과수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붙임. 충남 공주 과수화상병 예찰 현장 점검**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담당자	연구사	이미현 (063-238-1063)
				



**붙임**      **충남 공주 과수화상병 예찰 현장 점검**

**개요**

- 일시: 2026. 6. 11.(목) 16:30~17:10
- 장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사과 과수원, 1ha)
- 내용: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현장 대응 점검, 현장 문제점 논의

**세부 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6:30 ~ 17:10	40'	○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 상황 보고	충남농업기술원 공주시농업기술센터
		○ 관리과원 예찰 등 현장 점검	
		○ 농업인 준수 의무 사항 당부 등	